

연세를 엄습한 신자유주의

이번 자기로부터의 도전/여성창조의 당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단지 기독교가 많은 학교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운동권들의 잘못에서 기인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분명 운동권들은 반성해야만 한다. 그것 도 아주 심각히

그러나 이번 연세대학교 선거의 결과는 보다 깊은 곳에서 성찰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연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대는 50% 투표율을 넘지 못했으며,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당선 을 치르고 있고, 또한 많은 단대들은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학생운동의 퇴조만을 의미하는가?

물론 이런 현상은 90년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특히 대중 문화의 범람 속에서 대학 문화가 실종되고 탈정치화가 가속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젠 단 순한 탈정치화가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도전'을 지지한 아이들 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젠 단순한 탈정치화 수준의 문제가 아니 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보다 적극적이다. 이것은 운동의 프로젝트에 대한 거부이다. 아니 단순히 수동적인 거부가 아니라 '도전'이며 '저항'이다. 그리고 이것은 삶에 대한 화해할 수 없는 철학적/정치적 부딪침이다.

그들 목소리의 실체는 운동권에 대한 각성의 촉구가 아니다. 그 들 목소리의 끝에는 신자유주의가 있다. 자기로부터의 도전의 철 학은 바로 신자유주의이며, 그들은 이제 연세가 살아남기 위해서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도 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자기로부터의 도전은 결코 기독교 시 민 운동 세력 이 아니다. 또한 이번 자기로부터의 도전을 선택한 사람들 중 의미 있는 숫자는 단순한 운동권에 대한 거부를 넘 어 이 신자유주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익명 게시판에, 토론실에서 그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들을 왜 신자유주의로 바라보아야 하며, 왜 우리는 이번 사태 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마 우리 학교에서 기독교가 전면적으로 정치화되기 시작한 계기는 95년의 성정치문화제 였을 것이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기독교는 정치화를 시도했을 것이며, 한총련 사건을 계기로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다. '동성애' 에 대한 거부. '성적 순결성'의 확보. '기독교 사학으로씨의 정통 성 회복'. 이런 주장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던가? 바로 미국 공화당 내에서 가장 강력한 블록을 형성한 기독교 연합의 목 소리가 아니던가! 그렇다. 우리 학교내의 정치화된 기독교 세력은 미국 공화당 내 극우파인 기독교 연합과 정치적으로 동형인 것이 다. 그리고 이 기독교 연합에 의해 주도된 공화당의 프로젝트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전면화'가 아니던가!

또한 우리는 이번 자기로부터의 도전에 결합한 속칭 '네트워크 파'의 모습도 제대로 봐야 한다. 아마도 학생의 위치를 '소비자'로 규정하고 '교육 소비권'확보 등의 목소리는 이들의 목소리라고 봐 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기독교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세력 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다. 이들이야말로 또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옹호자들이다. 대학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 바로 '경영 합리화'가 아니던가? 이들의 대학당국에 대한 비판은 '경영 합리화'를 위한 비판이다. 우리 사 회가 워낙 합리적이지 못하다보니 이들의 목소리가 '비판적'으로 들리는 것일 뿐이다. 경제 논리를 전면화하여 경영학적으로 삶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 이것

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아니던가.

그러나 이들의 실체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들의 등장- 거의 전 단대에서 이들이 지지를 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들을 선택한 연 세대 다수 학생들의 선택은 '능동적'인 것이었으며, 이들의 언어에 대한 지지며 수용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단지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 의해 선택되고 수용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다. 이들 학생들은 신자유주의를 통하여 자기 삶을 방어하고 싶은 것이다.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가 도입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계층은 바로 중산층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나는 자기로부터의 도전, 그 속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훑어보며 새삼 내가 '제3세계 시민'임을 깨닫는다. 80년 대 대처의 등장과 더불어 서유럽과 영미를 강타했던 신자유주의 돌풍, 구소련과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 역사의 정점을 차지한 듯 기고만장했던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그러나 그 이념은 자신의 최대의 적이었던 공산주의의 시체가 썩기도 전에 그 위에서 '위기'에 봉착했다. 태국으로부터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의 본질은 사회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해금되어 그 야만적 얼굴을 드러낸 신자유주의가 자신의 침범해 지편드들에 의해 어떻게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위기를 불러들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사회주의 몰락 10년,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승전보가 울린 지 10년, 하지만 그 승전보는 패퇴의 나팔소리가 되어 독일을 마지막으로 서유럽은 다시 좌파 정권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이미 서유럽에서는 '한물간' 아니 최소한 지금은 견제당하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 프로젝트가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전면화 되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역사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좌파정권을 몰아내고 신자유주의를 선택했던 서유럽 중산층들처럼 이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수용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본다. 이견 비극이다.

이들이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반'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복지의 축소와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빈곤은 심화될지라도 적어도 중산층적인 삶을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남에게 빵조각이 덜가면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 건 신호탄이다. 서유럽에서 신자유주의가 도입될 때 그 침범노릇을 한 것이 중산층이었던 것처럼, 자기의 삶이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학생들이 전면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침범이 되어 자기 살 길을 찾고자하는 신호탄이다. 어찌보면 지금이야말로 학생들의 계급적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견 또 비극이다. 자기의 삶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신자유주의에 기꺼이 표를 던졌던 서유럽의 중산층들이, 자신들의 지지했던 그 신자유주의가 자신들의 삶을 방어하기는커녕 세계를 극단적으로 이분화하는 이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 이제 다시 '좌파'를 지지하고 있는 이 때에, 그 신자유주의를 통해 살아남고자 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모습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올해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지역 선거에서 드러나는 몇몇 양상들의 이면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단순히 운동권들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학부생들을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 있으며, 자기 삶을 방어하는 질서로 '신자유주의'를 어떤 의미로든 수용하고 있다.(이것이 우리학교만의 예가 아님을 굳이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나무누리에서 서울대 총학방을 들어가 보기를 권한다.) 또한 이번 당선된 팀을 단순히 '기독교'세력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 대해 보다 '역사적인 언어'로 규정을 내려야 한다. 그들은 '기독교'이면 서 동시에 '신자유주의자'들이다. 미국 공화당의 신자유주의를 가장 오른쪽에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연합'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사실 신자유주의는 제국주의-파시즘적이다. 세계화의 덮을 읽어 서 알겠지만 세계화란 제3세계국가와 자국내

빈민층 -소위 제4세 계 - 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논리체계이다. 신자유주의는 이3세 계와 4세계에 대해 동시에 폭압적인 체제이며, 국내적-국제적 복지 정책을 동시에 파괴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본다면 NL의 제국 주의 논리는 신자유주의의 한쪽 측면만이 부각되어 있다. 신자유 주의의 본질은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논리만을 절대화하여 삶의 다른 영역 을 식민화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도 제국주의적 논리이다.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삶의 '전면'을 경영합리화할 것을 요구하나.

가족도, 부부관계도, 친구관계도,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관계를 '경영합리화'한다. 신자유주의는 '경영학 언어'로 도배되어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을 단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자본 가 계급의 착취에 대한 저항만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학 연의 시각도 비판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시도되어야 한다. 바로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논리에 따라 파괴되고 식민화되고 있는 삶의 다양한 층위로부터 터의 저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담론적 층위에서는 우리는 민족/국가와 여성의 대립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국 가의 힘이 클 때 여성들의 권리신장(?)도 가속화되었다는 주장도 들어 볼만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은 '파시즘'에 대한 삶의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층위로부터의 저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자유주의자들 -자기로부터의 도전 - 에 대해 '같은 학 우'라든가, '열심히 할 때는 도와주고'라는 말은 써서는 절대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94년 비권 총학은 적어도 '신 자유주의자'들이 될 수가 없었다. 물론 돌이켜보면 그 때 오테민 과 그 일당들의 주장은 충분히 '신자유주의적'이었지만, 그때는 그들이 신자유주의자들이 '될 수가 없던' 때였다. 오히려 그때 그 들의 주장은 합리적인 시민 운동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나의 경향이 아무리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어떤 맥 락에 놓이는가에 의해 그 주장의 가치는 달라진다. 이번 총학은 '기독교적'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일상의 정치화를 강화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선거에 서 일상의 문제를 가장 일상적으로 풀어낸 팀은 도전이었다. 문 제는 이 팀은 일상을 역사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일상의 로만 바라봄으로써 거의 실용주의자적인 - 어차피 신자유주의라 는 것이 그렇지만 - 측면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운동권들은 '모든 것'을 역사적 언어로 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왜 운동권 들의 자료내용은 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려운가? 글 내용의 차이보다 글 형식의 차이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파워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것은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보다 어떻게 효과적 으로 보여줄 것인가를 위해 고안된 도구이다. 어찌 보면 철저히 자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운동권들의 글은 '논 문'이다. 이미 운동권은 글 내용에서부터 일상을 떠나 있는 것이다. 일상을 이야기하지만 그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아닌, 역사적 분석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상의 정치화는 두 가지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탈역사화 된 일상에 역사성과 사회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 언어가 '역사적'일 것을 요구한다. 아마 운동의 초기에 쓰 여진 글들은 대부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운동권들의 문제는 노정 되고 있다. 현재의 운동권들은 탈역사화된 '일상' 을 전혀 성찰하지 않고, 다만 '역사적 현실'에 대한 '역사적 분석' 만을 가할 뿐이거나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현실에 대해 '역사적 언어'를 들이댈 뿐이다. 만약 연세대학교의 탈역사화된 일상에 역 사성과 사회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면, 적어도 교양수업에서 요 새 주로 하는 '조 발표' 식 수업에 대해 뭔가를 이야기했어야 하 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 지쳐하고 있 던데, 그저 일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면 '독서실 화된 도서관', '팅 빈 인문학 강의', '셔틀버스'등등의 이야기밖에 없다.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다. 왜? 수업을 안 들어가니깐!! 운동권의 일상이 일반학우라는 인간들의 일상과 너무나 패턴이 다르지 않은가? 일상에 대해 성찰하고 일상을 역사성과 사회성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오고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조발표 짜증나' '그지 너무 많지 않냐' 이 수준에 서 이야기가 오고 간 다음, 이 '일상'을 역사적, 사회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저 '학교가 직업훈련소화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언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일상의 정치화는 역사적 견지의 일을 일상적으로 풀 어내는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업주의를 배격하자'느니 '그/ 그녀는 너무 상업적이다'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이 말은 잘못 된 말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럼 상업적이지 않단 말인가? '대학 문화가 자본주의화되었다'는 말도 잘못된 말이다. 자본주의 내에 있는 대학문화가 어떻게 자본주의적이지 않을 수 있는가? 다시 생각해보자. 독일의 파시즘은 독일 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 에 의해 수립되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파시 즈는 승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는 일상적인 수준에서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파시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파시즘과 싸워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장 대 표적인 파시즘적 언어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다. 이 말은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이전에 한 모든 말을 무화시킨다. 이런 일 이 과연 우리 사회가 그 동안 아무런 시스템 없이 사적인 연줄망 으로 버텨왔다는 사실과 무관할 수 있을까? '제국주의 반대'를 목 청 높여 부르는 NL들만 하더라도 그렇다. 그들은 미국 반대를 그렇게 외치지만 나 말구 '(한)국악'듣는 NL활동가는 아직까지도 본 적이 없다. - 그리고 그네들의 집에 한국어 사전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을까? -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역사적 사건들이 사실은 일상적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목청 높여 부는 운동권적 언 어들 -좌파니, 살아있는 연대니, 반자본주의적이나, 반제국주의적 이니 하는 모든 일체의 프로파간다들 - 이 사실은 우리 삶과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여성주의자들이 아무리 여성주의적인 언어를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수준으로 내려오면 어떤 대단한 '여성주의자'속에서라도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

사실 모든 언어, 프로파간다는 윤리적인 것이다. 그것은 '~해야 한다'는 정언 명제를 가지고 있다. 나는 데리다 처럼 아무리 언어 속에서가 X표를 치더라도 언어 자체가 이미 파시즘적이라는 바 르트의 말에 동의한다. - 물론 바르트가 언어가 파시즘이라는 것 을 랑그에서 벗어날 수없다는 식의 의미였지만 - 그 어떠한 분석 적 언어도 윤리적 명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 '김 대중 정권 타도하자'는 말은 '타도하러 나와라'는 말이다. - 사실 이렇게 모든 말이 다 프로파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 가? - 이 수준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사실 우리도 제대로 하기 힘들고 우리의 삶과도 안 맞는 말을 무섭게도 뱉어내고 있다. 이에 반해 '도전'의 윤리는 무엇인가? 바로 학부생들이 '지 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 그것을 가속화하는 말 이 아닌가. 추상적이고 역사적 언어로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동 시에 구체적인 일상의 수준에서는 우리도 하기 힘든 윤리적 실천 을 요구하는 운동권들이 어찌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여성주의자 들은 지난번 실업자 문화제 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할 것이다. 돌 파구와 비상구라는 비유로 설명한. 우리가 그 비상구에 대해 이 야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떠드는 것은 '야, 이 비겁한 것들야. 니 네 혼자 잘 살겠다고 지랄이나. 이리 와서 빨리 데모해'라는 말밖 에는 안되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일상의 정치화는 우리 언어만 정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정치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의 삶에 역사성과 사회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 금은 데모하고 있지만 어차피 나도 좀 있으면 직업 준비를 할 사 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고 려하면서 - 눈치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 그것에 대한 그들의 느낌과 생각을 읽고 그것을 역사적, 사회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말하기 방식을 변화하자. 사실 어차피 우리의 글/말 언어가 지나 치게 역사적이라면, 그리고 또 일상의 언어가 지나치게 일상적이 라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어 사이에 갭이 너무 크다면. 그래서 말하기 방식을 바꿀 수가 없다면... 말의 매체를 바꾸어 버리자.

과거 말/글 언어 자체가 이미 남성들의 것, 지배자들의 것이었음 을 상기하자. 그 때 권력적으로 소수자들의 언어는 무엇이었던 가? 뭘! 여기에서 나는 우리가 이제는 영화/퍼포먼스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화에

이번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숙사에 걸려오는 음란전화를 녹음하고, 자위행위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을 여학우를 인터뷰하고, 기숙사에 사는 여학우들의 일상을 인터뷰하고,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들어줬다면 상황이 어찌되었을지 보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 누군가도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은 그 누구도 그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물론 우리가 편집함으로써 그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